

#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 of Old Korean's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on Residential Mobility

김진엽\*

Jinyhup Kim\*

### Abstract

In Korea, the population size of the elderly is rapidly increasing, and housing for them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In particular, Aging in Place (AIP) has steadily been presented as a direct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s of the elderly with their children on residential mobility for older Koreans. To do so, this study employed random effect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dataset of the 2008-2020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residential mobility for older Koreans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Second, as age increased, the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tended to further promote residential mobility for older Koreans, but such effects varied depending on related variable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further promoting residential mobility for older Koreans increased through the interaction effects of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sidential mobility of older Koreans, i.e., whether the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improve independent residential environments by enhancing housing stability, in terms of A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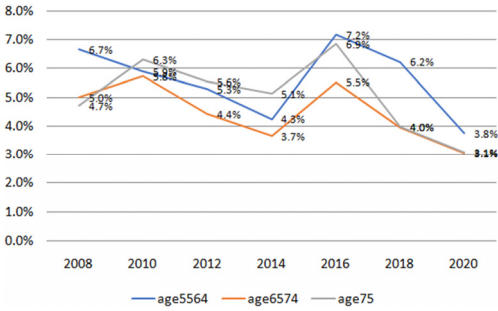
**Keywords:** Aging in Place, Senior Housing, Residential Mobility, Interaction with Children, Social Network

### 1. 서론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22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2025년에는 20.6%까지 증가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전망

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도달 연수(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서 20%로 증가)가 일본 10년, 미국 15년, 영국 50년, 오스트리아 53년 임과 비교할 때 한국의 7년은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속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 추이 속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노인 주거 문제이다. Fig. 1은 2008-2020년 연령별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율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연령 노인인구에서 가장 활발한 주거이동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전공 조교수(jyk@km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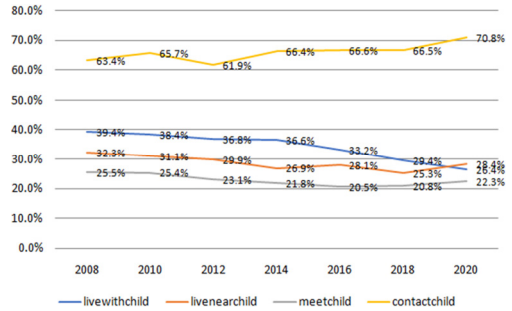


**Fig. 1.** Residential Mobility for Seniors Stratified by Age Groups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0) (in Korean)

만,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중연령 노인인구에 접어들며 주거이동율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이동을 추이는 75세 이상 고연령 노인인구에서 일부 반등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의 주거 행동은 연령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급속히 증가하는 미래 노인인구에 대응하여 연령별 주거 행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고연령 노인인구에서 주거이동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노인인구의 주거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ig. 2는 2008-2020년 노인인구의 자녀와의 교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인구의 비중은 2008년 39.4%에서 2020년 26.4%까지 감소하였다. 비슷하게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에 자녀가 거주하는 노인인구의 비중도 2008년 32.3%에서 2020년 28.4%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들과의 만남을 갖는 노인인구의 비중도 2008년 25.5%에서 2020년 22.3%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들과 연락을 하는 노인인구 비중은 2008년 63.4%에서 2020년 70.8%까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녀와의 교류 정도가 노



**Fig. 2.** Share of Seniors Stratified by Interaction with Children

Sourc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0) (in Korean)

인인구의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와의 교류가 주거안정성을 증진 시켜 노인인구의 독립적인 정주환경을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노인 주거정책을 제언하는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노인주거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와의 동거,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에 자녀의 거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만남 또는 연락 등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안정성, 즉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실증분석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는 시설로의 이동을 막아주고 주거이동 비용을 절약하며 주거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화 심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잠재노인가구를 포함하여, 65세 이상 노인가구 진입을 앞두고 어떠한 주거행동을 보이는지 비교 분석하려 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확률효과로짓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즉,

자녀와의 교류가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노인인구 주거이동 결정요인

국내 학자들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임미화(2013)는 2007년 이후 연간 2-3%씩 하락하는 우리나라 가구의 주거이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구와 주택시장 특성 변수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1998-2010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Cox 비례위험 모형 결과로 임시직보다 상용직일수록 주거이동이 감소(0.811,  $p < 0.01$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거이동이 감소(0.908,  $p < 0.01$ ), 기혼의 경우 주거이동이 감소(0.786,  $p < 0.01$ )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주택임대료가 증가할수록 주거이동이 증가(1.001,  $p < 0.01$ ),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주거이동이 증가(1.475,  $p < 0.01$ ), 특히 지역 전세가격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이 급격히 증가(6.285,  $p < 0.01$ )함을 발견하였다.

이경애·정의철(2014)는 고연령 자가소유 가구의 주거이동과 주거이동 후의 주거점유형태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3-2012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이변량 프로빗모형 결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 확률은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 유의성까지 보여주었다. 여성 가구주는 주거이동 할 확률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낮았으며(-0.174,  $p < 0.05$ ), 기혼 가구도 미혼 가구에 비해 주거이동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0.333,  $p < 0.01$ ). 하지만 배우자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경우 주거이동 가능성이 증가하였다(+0.212,  $p < 0.05$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이동 경향이 낮았으나(-0.034,  $p < 0.10$ ), 가구원 수의 변화가 클수록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187,  $p < 0.01$ ). 마지막

으로, 주택자산과 가구실질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주연·전희정(2018)은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향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시대에 따라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향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006년과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모형 결과로 2006년과 2016년 모두 주택의 설립연도가 클수록 주거이동 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컸다(+0.187,  $p < 0.10$ ; +0.184,  $p < 0.05$ ). 또한, 두 개 연도 모두에서 점유형태가 자가일 경우 주거이동 의향 확률은 현저히 떨어졌고(-1.352,  $p < 0.01$ ; -1.145,  $p < 0.01$ ),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거이동 의향 가능성은 줄어들었다(-0.040,  $p < 0.01$ ; -0.021,  $p < 0.01$ ). 2006년에 비해 2016년에 발생한 주거이동 의향 결정요인의 차이로는 과거에 비해 경제적 특성(주거비, 소득, 대출·전세·월세 부담감)과 같은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후·이재수(2020)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의 주거이동과 주택자산 선택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201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 결과로 자녀와 동거하는 베이비부머 가구는 미래 주거이동 계획에서 지역 내 근거리 이동에 양(+)의 경향을 보여주었다(+0.418,  $p < 0.01$ ).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가구는 지역 내 근거리 이동 계획에서 유의미한 음(-)의 경향을 보여주었다(-0.305,  $p < 0.01$ ). 총소득과 총자산이 클수록 지역 내 또는 간 이동에서 모두 양(+)의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아파트에 거주와 자가 거주 경우 지역 내 또는 간 이동에 모두 음(-)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가구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내 또는 간 이동에 음(-)의 경향을 보였고, 주택이 노후화 될수록 지역 내 이동에 양(+)의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택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 내 이동에 음(-)의 경향, 주거환경 만족도

가 높을수록 지역 간 이동에 음(-)의 경향을 보였다.

최효비·최열(2022)은 부산, 울산, 경남 거주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이동 의사 및 주거이동 계획 지역에 대한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2016-2020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변량 프로빗 모형 결과로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 의사가 없을 확률(-0.343,  $p < 0.01$ )이 높았으나, 고등교육을 받은 가구주일수록 주거이동 의사가 있을 확률(+0.101,  $p < 0.10$ )이 높았다. 아울러,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주거이동 의사 확률(+0.104,  $p < 0.01$ )이 높았으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0.627,  $p < 0.01$ ), 85m<sup>2</sup>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0.102,  $p < 0.05$ ), 주택 및 주거환경에 만족하는 가구일수록(-0.213,  $p < 0.01$ ; -0.147,  $p < 0.01$ ) 주거이동 의사가 있을 확률이 낮았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일수록(-0.275,  $p < 0.01$ ),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가구일수록(-0.210,  $p < 0.01$ ) 주거이동 의사 확률이 낮았고, 주택자산과 총자산이 많은 가구일수록(+0.003,  $p < 0.10$ ; +0.003,  $p < 0.05$ ) 주거이동 의사가 있을 확률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은 인구학적 특성, 경제학적 특성, 주택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혼재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 가구일수록, 자가 가구일수록 일관되게 주거이동에 음(-)의 경향을 나타냈다.

## 2.2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 주거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에서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 주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권연화·최열(2016)은 노년층(65세 이상)과 잠재 노년층(50-64세)을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주거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12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항 로

지스틱 모형 결과로 노년층의 경우 자녀와의 접근성이 취약할수록(-0.163,  $p < 0.10$ ), 만남빈도와 연락빈도가 많을수록(-0.219,  $p < 0.05$ ; -0.206,  $p < 0.05$ ) 참조집단인 자가아파트에 비해 임차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잠재 노년층에서 참조집단인 자가아파트에 비해 임차주택이 아닌 임차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감소하는 경향(-0.419,  $p < 0.05$ )을 보여준다. 그 외에는 통계적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추가로, Choi et al.(2018)은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특성이 독립적인 생활, 주거이동, 주거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2008-2014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모형 결과로 자녀와의 접근성이 우수할수록(+0.065,  $p < 0.05$ ), 만남빈도와 연락빈도가 많을수록(+0.182,  $p < 0.05$ ; +0.208,  $p < 0.05$ ) 독립적인 생활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모든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가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미쳤으나, 오직 만남빈도(+0.164,  $p < 0.05$ )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주거점유형태 결정에는 어떠한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련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Zhang et al.(2013)은 노인인구와 그들의 자녀들의 근접 거주를 위한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0-2004년 Health and Retirement Study 자료를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모형 결과로 노인인구와 그들의 자녀들은 상호 지원을 위해 근접 거주를 조정해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 10-15년 이상 생존 가능성을 나타내는 주관적 변수는 노인인구가 그들의 자녀 근처로 이동하는데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이러한 경향은 두 집단(1924년 이전 출생, 1924-1930년 사이 출생)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0.77,  $p < 0.05$ ; +0.83,  $p < 0.10$ ). 그러나 예상수

명의 증가가 자녀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1924-1930년 사이 출생 집단에서 노인인구가 그들의 자녀 근처로 이동(+0.85,  $p<0.05$ ), 자녀가 노인인구 근처로 이동(+1.07,  $p<0.01$ )에 모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경우 노인인구가 그들의 자녀 근처로 이동(+1.47,  $p<0.01$ ), 자녀가 노인인구 근처로 이동(+0.92,  $p<0.05$ )에 동시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Lee and Painter(2014)는 자녀들의 거주 접근성이 노인인구의 주거점유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1968-2007년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한 생존분석 모형 결과로 어른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인구가 자가소유를 떠나는 확률(-0.513,  $p<0.05$ )을 낮춰주었다. 또한, 자녀가 근처에 거주할 경우에도 모든 지리적 단계(tract, county, state)에서 자가소유를 떠나는데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2년 안에 자녀들이 노인인구와의 동거를 위해 이동(+0.297,  $p<0.05$ )했거나, 같은 지리적 단계로 이동(tract: +0.243,  $p<0.05$ , county: +0.334,  $p<0.05$ )했을 때 자가소유를 떠나서 점유형태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 근처로 주거 이동을 하더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인구가 자가소유를 떠나는 가능성을 줄여주지는 못하였다.

Spring et al.(2017)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주거이동과 주거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1980-2013년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한 이항 로지스틱 모형 결과로 1마일 내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47%까지 주거이동을 줄이고, 1마일 내에 최소한 1명의 자녀가 거주할 경우 36%까지 주거이동을 낮추며, 1마일 내에 형제, 자매, 친척 등이 거주할 경우 26%까지 주거이동을 감소시켰다. 반대로 1마일 외에 자녀 또는 형제, 자매,

친척 등이 거주할 경우 주거이동을 각각 27%, 13%까지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Begley and Chan(2022)은 자녀와의 거리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0-2004년 Health and Retirement Study 자료를 활용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형 결과로 어른 자녀와 동거(-0.034,  $p<0.05$ )를 하거나 근처에 거주(10마일 이내: -0.032,  $p<0.05$ ; 10-29마일: -0.021,  $p<0.10$ ; 30-49마일: -0.022,  $p>0.10$ )할 경우,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은 29마일까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돌봄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자가소유자보다는 임대주택자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인구는 자녀들과 상호지원을 위해 근접 이주를 조정하며 주거이동에 양(+)의 영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근처에 거주 시 주거이동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 3. 연구 질문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교류가 많을수록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는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Choi et al., 2018; Zhang et al., 2013).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음(-)의 영향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Lee and Painter, 2014; Spring et al., 2017; Begley and Chan, 2022). 즉, 국내외 연구 결과들은 다소 뒤섞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자녀와의 교류 관련 다양한 변수를 사용해 장소별, 연령별 집단 세분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 결정요인을 다룬 실증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으며 구

체적인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3.1 자녀와의 교류가 장소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 질문은 자녀와의 교류(자녀와의 동거,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 거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만남,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연락)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본다.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어떠한 변수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1로 “자녀와의 교류가 장소와 무관하게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한다”로 설정했다.

### 3.2 자녀와의 교류가 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 질문은 자녀와의 교류가 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노인인구의 경우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주거이동의 확률이 매우 낮다. 또한, 노인인구 중에서도 고령일수록 주거이동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상 집단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고령화 정도에 따른 자녀와의 교류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한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2로 “자녀와의 교류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가 더욱 증가하므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한다”로 설정했다.

### 3.3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들을 서로 곱한 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알

아본다. 즉,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 거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만남,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연락 사이의 조합을 통해 상호작용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 3으로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들의 조합이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가 더욱 증가하므로,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한다”로 설정했다.

## 4. 자료와 방법론

### 4.1 자료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6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45세 이상 중고령자 중 일반 가구 거주지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로 기본조사를 진행하여, 2020년까지 8차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설문 내용은 인구적 배경, 경제적 특징, 주택 특성, 과거 주거이동 여부 등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중 전국을 대상으로 가구주가 55세 이상인 5,776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55세 이상에서 주로 퇴직을 경험하게 되는 잠재노인가구를 포함하여, 노인가구와 함께 주거행동을 비교 분석하려 한다. 2008-2020년에 걸쳐 12년간 유효 표본 총 5,776가구를 추적하지만, 패널데이터 특성상 모든 표본이 12년에 걸쳐 조사가 완성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2008년 3,763가구, 2010년 3,786가구, 2012년 3,888가구, 2014년 3,974가구, 2016년 4,102가구, 2018년 3,792가구, 2020년 3,720가구에 대한 추적이 발생하였고, 총 27,025

경우를 확보하였다. 즉, 2008년 3,763가구를 7개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 관찰한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이다. 또한, 2010년부터 일부 추가되는 가구의 경우 수를 더해 총 27,025 경우가 최종 확보되었다.

아울러, 2008년 3,763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5-64세 1,334가구, 65-74세 1,497가구, 75세 이상 932가구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표본 수의 대표성 (Representativeness)을 보여주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고, 2010년, 2015년, 2020년 연령 별

**Table 1.** Variable Description

Category	Description
Residential Mobility	Move (move=1; otherwise=0)
Age 55-64	Age (55-64=1, otherwise=0), reference group
Age 65-74	Age (65-74=1, otherwise=0)
Over Age 75+	Age (over 75=1, otherwise=0)
Sex	Sex (male=1, female=0)
Education	Education (bachelor degree or higher=1, otherwise=0)
Employment	Employment (employed=1, otherwise=0)
Widowhood	Widowhood (widowed=1, otherwise=0)
Single Household	Single household (singled=1, otherwise=0)
Health Status	Health status (best=1. good=2. not bad=3, bad=4, worst=5)
Household Income	Logged household income
Housing Wealth	Logged housing wealth
Financial Wealth	Logged financial wealth
Mortgage	Logged mortgage amount
Apartment	Housing type (apartment=1, otherwise=0)
Ownership	Tenure type (ownership=1, otherwise=0)
Small City	Eup or myeon (yes=1, no=0), reference group
Medium City	Dong in small and medium metropolitan area (yes=1, no=0)
Large City	Dong in Seoul and large metropolitan areas (yes=1, no=0)
Co-living	Co-living with children (yes=1, no=0)
30 Mins Living	Children living with in 30 mins by transportation (yes=1, no=0)
Meeting Children	Meeting children more than once a week (yes=1, no=0)
Contacting Children	Contacting children more than once a week (yes=1, no=0)
Grandchildren	Taking care of grandchildren over the past year (yes=1, no=0)
Attending Meetings	Attending a meeting more than once a week (yes=1, no=0)
Meeting Friends	Meeting friends or neighbors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yes=1, no=0)
Year Dummy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Regional Dummy	Seoul, Incheon, Gyeonggi, Daegu, Busan, Gwangju, Daejeon,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Ulsan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2010년-55-64세: 2,840,535, 65-74세: 1,949,995, 75세 이상: 972,757, 2015년-55-64세: 3,771,179, 65-74세: 2,237,424, 75세 이상: 1,426,657, 2020년-55-64세: 4,588,929, 65-74세: 2,691,087, 75세 이상: 1,949,107).

Table 1은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될 변수 설명이다. 먼저 종속변수로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대해 이동했다면 1, 그 외에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설명 변수는 노인인구의 인구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최종학력, 고용여부, 사별여부, 독거노인여부, 그리고 건강상태를 변수로 사용한다. 경제학적 특성으로는 가구소득의 자연로그 값, 주택자산의 자연로그 값, 금융자산의 자연로그 값, 주택담보대출액의 자연로그 값을 변수로 사용한다. 주택 특성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인 아파트 변수가 사용되고, 주택 점유형태인 자가소유 변수가 사용된다. 또한, 현 주택이 위치하는 도시의 크기별로 소형도시, 중형도시, 대형도시 변수가 사용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활용될 자녀와의 교류 특성에 대해 자녀와의 동거 여부,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 거주 여부,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 만남, 1주일에 1회 이상 연락 여부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지난 1년 중 10세 미만 손자녀 돌봄 여부, 참석 모임의 수가 주 1회 이상 여부, 지인 만남이 주 3회 이상 여부와 같은 사회적 교류 관련 변수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시간터미와 시도에 대한 장소터미를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 4.2 방법론

방법론으로는 확률효과 로지스틱 모형(Random Effect Logistic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김태환·김창엽(2018)와 민인식·최필선(2012)에 따르면 패널 개체의 수가 많고, 시계열 관측 수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경우에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추정 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이변량 종속

변수를 사용하기에 고정효과모형이 아닌 확률효과 모형이 주로 이용되었다(김태환·김창엽, 2018; 이선우, 2012). 이러한 이론적 배경 논의를 반영하여 자녀와의 동거,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 거주 여부,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 만남 여부,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 연락 여부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고, 노인들의 주거이동을 종속변수로 사용해 확률효과 로지스틱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장소별 집단과 연령별 노인인구 집단에 대해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 5. 실증분석 결과

### 5.1 기술통계

Table 2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이다. 인구적 특성 관련하여 수도권 집단은 비수도권 집단보다 연령 55-64세와 연령 65-74세 가구주 비중이 낮으나, 연령 75세 이상 가구주는 더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수도권 집단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비중, 사별을 경험한 가구주 비중,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가구주 비중이 비수도권 집단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집단에서 남성 가구주 비중, 고용상태에 있는 가구주 비중, 독거노인 가구주 비중이 수도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 대해 가구소득과 주택담보대출액은 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은 비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주택 특성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가구주의 비중이 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자가소유 비중은 비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와의 교류 특성에 대해 자녀와의 동거,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만남, 지난 1년 중 10세 미만 손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 거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연락, 참석 모임의 수가 주



1회 이상, 지인 만남이 주 3회 이상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집단에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Table 3은 연령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이다. 인구적 특성 관련하여 남성 가구주 비중은 연령 65-74세, 연령 55-64세, 연령 75세 이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가구주와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가구주의 비중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사별을 경험한 가구주, 독거노인 상태

의 가구주,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가구주의 비중은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특성에 대해 가구소득, 주택자산, 금융자산, 주택담보대출액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택 특성과 관련하여 아파트에 거주 중인 가구주의 비중은 연령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적은 연령 집단일수록 중대형도시에 사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교류 특성에 대해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y Area

Variable	Total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Mean	SD	Mean	SD	Mean	SD
Age 55-64	0.484	0.499	0.468	0.499	0.494	0.494
Age 65-74	0.338	0.473	0.336	0.472	0.339	0.339
Over Age 75+	0.176	0.381	0.195	0.396	0.165	0.165
Sex	0.452	0.497	0.435	0.495	0.462	0.462
Education	0.085	0.279	0.105	0.306	0.073	0.073
Employment	0.326	0.469	0.274	0.446	0.357	0.357
Widowhood	0.331	0.470	0.335	0.472	0.329	0.329
Single Household	0.226	0.418	0.205	0.404	0.238	0.238
Health Status	3.835	0.886	3.920	0.868	3.785	3.785
Household Income	7.270	1.120	7.395	1.125	7.196	7.196
Housing Wealth	5.461	4.504	5.408	4.753	5.492	5.492
Financial Wealth	3.378	3.604	2.870	3.501	3.676	3.676
Mortgage	0.488	1.985	0.699	2.375	0.364	0.364
Apartment	0.372	0.483	0.421	0.493	0.343	0.475
Ownership	0.817	0.386	0.728	0.444	0.870	0.870
Small City	0.263	0.440	0.112	0.316	0.351	0.351
Medium City	0.319	0.466	0.362	0.480	0.294	0.294
Large City	0.416	0.493	0.524	0.499	0.353	0.353
Co-Living	0.343	0.474	0.436	0.495	0.288	0.288
30 Mins Living	0.288	0.452	0.283	0.450	0.290	0.290
Meeting Children	0.227	0.419	0.246	0.431	0.216	0.216
Contacting Children	0.658	0.474	0.632	0.482	0.674	0.674
Grandchildren	0.017	0.131	0.020	0.142	0.015	0.015
Attending Meetings	0.713	0.452	0.702	0.457	0.719	0.719
Meeting Friends	0.480	0.499	0.444	0.496	0.501	0.501
N	27,025		10,001		17,02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by Age

Variables	Age 55-64		Age 65-74		Over Age 75	
	Mean	SD	Mean	SD	Mean	SD
Sex	0.461	0.498	0.485	0.499	0.366	0.481
Education	0.112	0.315	0.066	0.249	0.045	0.208
Employment	0.486	0.499	0.228	0.419	0.077	0.267
Widowhood	0.157	0.364	0.417	0.493	0.644	0.478
Single Household	0.126	0.331	0.287	0.452	0.383	0.486
Health Status	3.551	0.845	4.009	0.849	4.280	0.792
Household Income	7.718	0.900	6.934	1.060	6.681	1.270
Housing Wealth	9.184	1.230	8.881	1.323	8.648	1.374
Financial Wealth	7.092	1.533	6.708	1.486	6.411	1.453
Mortgage	8.425	1.044	8.420	1.271	8.319	1.130
Apartment	0.413	0.492	0.335	0.472	0.330	0.470
Ownership	0.824	0.380	0.825	0.379	0.783	0.411
Small City	0.212	0.409	0.304	0.460	0.322	0.467
Medium City	0.344	0.475	0.303	0.459	0.283	0.450
Large City	0.442	0.496	0.391	0.488	0.393	0.488
Co-Living	0.395	0.488	0.268	0.443	0.343	0.474
30 Mins Living	0.240	0.427	0.339	0.473	0.320	0.466
Meeting Children	0.208	0.405	0.252	0.434	0.232	0.422
Contacting Children	0.636	0.481	0.694	0.460	0.653	0.475
Grandchildren	0.024	0.155	0.013	0.116	0.005	0.073
Attending Meetings	0.815	0.388	0.661	0.047	0.534	0.498
Meeting Friends	0.452	0.497	0.506	0.499	0.509	0.499
N	13,102		9,149		4,774	

자녀와 동거하는 비중은 연령 55-6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 65-74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녀가 거주하는 비중은 연령 65-7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 55-64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을 하는 비중도 연령 65-74세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 55-64세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년 중 10세 미만 손자녀 돌봄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이 나타났다. 참석 모

임의 수가 주 1회 이상 있는 가구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중이 줄어들었으나, 지인 만남을 주 3회 이상을 갖는 가구주의 비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 5.2 자녀와의 교류가 장소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자녀와의 교류가 장소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인구적 특성에 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소에 무관하게 주

**Table 4.** The Effect of Children Interaction on Elderly Residential Mobility by Area

Variable	Total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Age 65-74	-0.289***	0.088	-0.198	0.135	-0.371***	0.118
Over age 75+	-0.336***	0.112	-0.280*	0.165	-0.407***	0.154
Sex	-0.261***	0.088	-0.272**	0.131	-0.251**	0.120
Education	0.140	0.123	0.087	0.182	0.203	0.168
Employment	-0.282***	0.082	-0.228*	0.128	-0.295***	0.108
Widowhood	0.259***	0.099	0.135	0.144	0.389***	0.136
Single Household	0.077	0.100	0.101	0.147	0.053	0.137
Health Status	0.007	0.040	0.111*	0.062	-0.065	0.052
Household Income	0.032	0.037	0.002	0.055	0.056	0.052
Housing Wealth	-0.026***	0.008	0.015	0.012	-0.037***	0.011
Financial Wealth	0.054***	0.010	0.064***	0.015	0.043***	0.013
Mortgage	0.087***	0.015	0.041*	0.023	0.132***	0.020
Apartment	0.276***	0.068	-0.106	0.102	0.573***	0.093
Ownership	-1.768***	0.075	-1.699***	0.112	-1.794***	0.101
Large City	0.936***	0.268	3.800***	0.659	0.265	0.259
Medium City	0.205*	0.113	0.224	0.210	0.162	0.137
Co-living	0.168**	0.083	0.213*	0.124	0.133	0.111
30 Mins Living	0.252***	0.079	0.281**	0.119	0.214**	0.107
Meeting Children	0.105	0.086	0.082	0.128	0.113	0.117
Contacting Children	0.127*	0.074	0.182	0.111	0.052	0.101
Grandchildren	-0.072	0.216	-0.236	0.330	0.118	0.282
Attending Meetings	0.135*	0.075	0.131	0.110	0.125	0.104
Meeting Friends	-0.158**	0.064	-0.209**	0.099	-0.105	0.085
Con_	-2.930***	0.452	-6.249***	0.849	-2.027	0.549
Log Likelihood	-4894.51		-2192.84		-2653.31	
/lnsig2u	-0.208	0.136	-0.033	0.186	-0.512	0.233
Sigma_u	0.900	0.061	0.983	0.091	0.774	0.090
Rho	0.197	0.021	0.227	0.032	0.154	0.030

Note: \*P<0.1, \*\*P<0.05, \*\*\*P<0.01. Controlled by time and regional dummies.

거이동을 하는데 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참조 그룹: Age 55-64). 이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이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심승규·지인엽, 2021; 임미화, 2013; 최효비·최열, 2022). 남성 가구주의 경우와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에도 장소에 무관하게 주거이동에 음(-)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송주연·전희정(20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지속적인 수입을 통한 경제적 안정성이 주거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 일관되게 주거

이동에 양(+)<sup>1)</sup>의 효과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배우자의 죽음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Lee and Painter, 2014). 독거노인 여부가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진 않았으나, 건강이 안 좋은 경우 수도권 내에서 주거이동에 양(+)<sup>2)</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원 등 도심지 내 편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돌봄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특성에 대해 소득 자체가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자산이 높을수록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보단 일반주택의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의 경우 높은 가치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자산과 주택담보대출액이 많을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주거이동에 양(+)<sup>3)</sup>의 효과를 나타냈다. 금융자산이 높은 노인인구는 다운사이징 또는 전월세와 같은 주택 소비를 통해 주거 이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액 부담을 느낄 경우 저렴한 주택으로의 이동을 통해 주택자산을 낮춤으로서 주택담보대출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주택 특성에 대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는 주거이동에 양(+)<sup>4)</sup>의 효과를 미쳤으나, 비수도권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소유 노인인구는 장소에 무관하게 주거이동에 음(-)<sup>5)</sup>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참조그룹인 소형도시보다는 중대형도시에서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인구가 자가소유 시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려는 경향이 더 큼을 나타내고, 생활편익시설 등을 잘 갖춘 중대형도시에서 일상생활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로의 이동이 잦은 것으로 예측된다.

자녀와의 교류 특성 관련하여 모든 변수들이 주거이동에 양(+)<sup>6)</sup>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hoi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와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주거이동에 양(+)<sup>7)</sup>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질문 1에서 세운 초기 가설에 반대되는 내용이며, 자녀와의 교류가 주거안정성을 촉진시킨다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도 상반된 내용이다. 이는 주거이동을 통해 자녀와의 교류를 늘리고자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주거이동을 한 노인인구는 그렇지 않은 노인인구보다 평균적으로 자녀와의 교류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참석 모임의 수가 주 1회 이상 있는 경우 주거이동에 양(+)<sup>8)</sup>의 효과가 있었고, 지인 만남을 주 3회 이상을 갖는 경우 주거이동에 음(-)<sup>9)</sup>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i et al.(2018)에 의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참석하는 모임의 수 보다는 직접적인 사람과의 만남이 주거안정성에 큰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 5.3 자녀와의 교류가 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5는 자녀와의 교류가 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인구적 특성에 대해 남성 가구주의 경우와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주거이동에 음(-)<sup>10)</sup>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 연령 75세 이상 집단에서만 주거이동에 양(+)<sup>11)</sup>의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4의 내용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특성에 대해 소득 자체가 주거이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자산이 많을수록 연령의 증가와 함께 주거이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가치의 주택에 거

**Table 5.** The Effect of Children Interaction on Elderly Residential Mobility by Age

Variables	Age 55-64		Age 65-74		Over Age 75	
	Coef.	Std.Err.	Coef.	Std.Err.	Coef.	Std.Err.
Sex	-0.461***	0.116	-0.013	0.174	-0.264	0.234
Education	0.112	0.149	0.219	0.263	0.219	0.384
Employment	-0.219*	0.097	-0.368*	0.180	-0.446	0.418
Widowhood	0.179	0.136	0.180	0.191	0.423*	0.249
Single Household	0.232	0.143	0.159	0.193	-0.164	0.212
Health Status	0.043	0.053	0.020	0.075	-0.095	0.095
Household Income	0.080	0.058	-0.019	0.065	-0.016	0.072
Housing Wealth	-0.008	0.011	-0.027*	0.016	-0.065***	0.019
Financial Wealth	0.037***	0.012	0.083***	0.019	0.068***	0.025
Mortgage	0.106***	0.017	0.028	0.038	0.23	0.061
Apartment	0.226**	0.092	0.359***	0.131	0.306*	0.164
Ownership	-1.630***	0.104	-2.006***	0.145	-1.781***	0.165
Large City	*0.613	0.348	0.879*	0.469	2.959***	1.027
Medium City	-0.022	0.157	0.676***	0.221	-0.022	0.244
Co-living	0.131	0.104	0.301*	0.175	0.127	0.223
30 Mins Living	0.188	0.116	0.143	0.143	0.654***	0.169
Meeting Children	-0.051	0.126	0.354**	0.153	0.042	0.192
Contacting Children	0.087	0.100	0.243*	0.148	0.074	0.170
Grandchildren	-0.022	0.258	-0.123	0.459	0.205	0.792
Attending Meetings	0.206*	0.114	-0.041	0.133	0.212	0.158
Meeting Friends	-0.089	0.087	-0.167	0.122	-0.258*	0.154
Con_	-3.166***	0.641	-2.895***	0.800	-4.289***	1.276
Log Likelihood	-2556.61		-1447.16		-838.43	
/lnsig2u	-0.388	0.208	0.135	0.209	-1.291	0.843
Sigma_u	0.823	0.085	1.070	0.111	0.524	0.221
Rho	0.170	0.029	0.258	0.040	0.077	0.060

Note: \*P<0.1, \*\*P<0.05, \*\*\*P<0.01. Controlled by time and regional dummies.

주하는 노인인구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맞이하려는 경향이 큰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모든 연령층의 주거이동에 양(+)<sup>1</sup>의 효과를 보였으며, 그 효과도 연령과 함께 증가하였다. 즉, 금융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사이징 또는 전월세와 같은 주택 소비를 통해 주거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더 우수한 주거환

경으로 주거이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담보대출액은 오직 연령 55-64세 집단에서만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양(+)<sup>1</sup>의 효과를 보였다.

주택 특성에 대해 아파트 거주자는 주거이동에 일관된 양(+)<sup>1</sup>의 경향을 보였고, 자가소유 거주자는 주거이동에 일관된 음(-)<sup>1</sup>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참조 그룹인 소형도시보다는 대형도시에서 모든 연령층

에 걸쳐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변수인 자녀와의 교류 관련하여 실증분석 결과가 연구 가설 2에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가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 그 효과도 일부 증가되었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는 연령 65-74세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할 경우는 연령 75세 이상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 만남과 연락을 할 경우는 연령 65-74세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석 모임의 수가 주 1회 이상 있는 경우 연령 55-64세 집단에서만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보였고, 지인 만남을 주 3회 이상을 갖는 경우 연령 75세 이상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직접적인 사람과의 만남이 참석하는 모임의 수보다는 주거 안정성에 큰 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 5.4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들끼리를 서로 곱한 후, 상호작용 효과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이다. 먼저, “자녀와의 동거” 변수는 기본 생활 속에서 매일 노인들이 자녀들과 교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자녀와 동거 중인데, 그 외의 자녀와의 추가적 교류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가정하여 제외시켰다. 연구 가설 3과 관련하여 자녀와의 교류 관련 변수들의 조합이 주거이동에 미치는 효과들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일부 일치하였

**Table 6.** The Interaction Effects of Children Interaction Variables on Elderly Residential Mobility by Age

Variable	Total		Age 55-64		Age 65-74		Over Age 75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Co-living	0.060	0.101	0.046	0.124	0.050	0.242	0.128	0.258
30 Mins Living × Meeting Children	0.131	0.103	0.108	0.133	0.344	0.236	0.005	0.229
30 Mins Living × Meeting Children × Contacting Children	0.361***	0.082	0.126	0.123	0.514***	0.142	0.680***	0.181
Grandchildren	-0.063	0.215	-0.029	0.256	-0.113	0.460	0.334	0.784
Attending Meetings	0.201**	0.092	0.305**	0.139	0.086	0.169	0.181	0.205
Meeting Friends	-0.027	0.122	0.134	0.200	0.048	0.206	-0.267	0.241
Attending Meetings × Meeting Friends	-0.168	0.141	-0.266	0.219	-0.304	0.250	0.029	0.308
Log Likelihood	-4896.93		-2557.00		-1447.76		-842.20	
/lnsig2u	-0.198	0.135	-0.387	0.207	0.170	0.205	-1.171	0.752
Sigma_u	0.905	0.061	0.823	0.085	1.089	0.112	0.556	0.209
Rho	0.199	0.021	0.171	0.029	0.265	0.040	0.086	0.059

Note: \*P<0.1, \*\*P<0.05, \*\*\*P<0.01. Controlled by demographic, financial,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ime and regional dummies.

다. 먼저,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하면서 1주일에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경우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보여주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4-5에서 1주일에 1회 이상 만남 변수가 음(-)의 영향 또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로 예측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면서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연락과 만남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함과 함께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그 효과도 Table 5의 연령별 실증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결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많은 학자들은 노인주거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왔으나,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연구를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확률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즉, 자녀와의 교류가 주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장소와 무관하게 주거이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즉 자녀와의 교류 관련하여 모든 변수들이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아마도 자녀와의 교류가 많은 노인인구일수록 자녀들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자주 만나 상호지원하기 위해 자녀 근처로 이동을 감행한 것으로 예측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분석에 대해 수도권 집단에서만 자녀와의 동거가 주거이동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집단에서만 지인 만남을 주 3회 이상을 가질수록 주거이동에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추가로,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를 미치며, 그 효과는 연령과 변수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녀와의 동거는 연령 65-74세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할 경우 연령 75세 이상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 만남과 연락을 할 경우 연령 65-74세 집단에서 주거이동에 높은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요 변수에서 높은 양(+)의 효과는 중고령층 노인인구 집단에서 발생하였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효과들을 일부 증대시켰다. 특히, 대중교통 30분 거리 내 자녀가 거주하면서 1주일에 1회 이상 자녀와 연락과 만남을 동시에 하는 경우 통계적 유의함과 함께 주거이동에 양(+)의 효과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대응한 노인 주거정책에 대해 제언한다면, 자녀와의 교류는 장소와 무관하게 노인가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키는 요소로서 노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1차적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일부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을 더 편리하고 빠르게 종종 만나기 위한 근접 이주는 상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맞는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녀들이 대중교통 30분 이내 거리

에 거주하며 1주일에 1회 이상 만남과 연락을 유지할 경우 노인들의 주거이동은 더욱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슷하게,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자녀와의 긍정적 네트워크를 도모하여 노인인구가 자녀 주변으로 이동함으로써 상호지원을 통한 노년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추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연령 효과와 출생 코호트 효과가 다소 혼재되어있는 결과 값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차후 연구에서는 연령 효과와 출생 코호트 효과를 분리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Covid-19에 의한 주택시장의 침체기를 포함하고 있다. 시간 더미를 활용해 통제를 시도하였으나, 연도별 화폐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추가적 변수 활용 부분에서 미흡하였다. 차후, 추가적인 변수 활용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Covid-19 기간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추가 분석이 실행된다면 보다 다양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권연화·최열(2016), “노년층과 잠재 노년층의 주거 선택 비교분석”, 『부동산학보』, 66(1): 73~87.
2. 김진후·이재수(2020), “베이비부머의 은퇴 여부에 따른 주거이동의 영향 요인 비교 연구”, 『도시정책연구』, 11(3): 161~183.
3. 김태환·김창엽(2018), “가계부채가 미충족의료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4): 71~95.
4. 민인식·최필선(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5. 송주연·전희정(2018), “노인 주거이동 의향 결정요

인 및 변화에 관한 연구: 2006·2016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정관리연구』, 13(2): 191~220

6. 심승규·지인엽(2021), “생애주기별 주택소유와 주거 유형: 연령대별 손바닥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LHI Journal』, 12(4): 31~40.
7. 이경애·정의철(2014), “고연령 자가 거주 가구의 주거이동 및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가구의 성별 특성을 중심으로”, 『주택연구』, 22(3): 127~152
8. 이선우(2012), “근로장애인의 빈곤요인에 대한 연구”, 『제4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693~713.
9. 임미화(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구주 연령별 주거이동발생 요인”, 『부동산연구』, 23(2): 79~94.
10. 최효비·최열(2022), “이변량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노인가구의 주거이동 의사 결정요인 분석-부산·울산·경남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분석』, 8(2): 75~94.
11. 통계청(2022), 『2022 고령자 통계』, 대전.
12. 한국고용정보원(2020),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8차 원자료』.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0),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1-8th Wave』. (in Korean)
13. Begley, J. and S. Chan (2022), “Next to Kin: How Children Influence the Residential Mobility Decisions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the Economics of Ageing*, 23:100394 (Online Published).
14. Choi, Y., Y. H. Kwon and J. Kim (2018), “The Effect of the Social Networks of the Elderly on Housing Choice in Korea”, *Habitat International*, 74: 1~8.
15. Lee, K. O. and G. Painter (2014), “Housing Tenure Transitions of Older Households: What is the Role of Child Proximity?”, *Real Estate Economics*, 42(1): 109~152.
16. Spring, A., E. Ackert, K. Crowder and S. J. South (2017), “Influence of Proximity to Kin on Residential Mobility and Destination Choice: Examining Local Movers in Metropolitan Areas”, *Demography*, 54(4): 1277~1304.
17. Zhang, Y., M. Engelman and E. M. Agree (2013), “Moving Considerations: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rent-Child Residential Proximity for Older Americans”, *Research on Aging*, 35(6): 663~687.



---

요 약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는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임의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는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연령과 변수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 시켜 독립적인 정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노인주거, 주거이동, 자녀교류, 소셜네트워크

---